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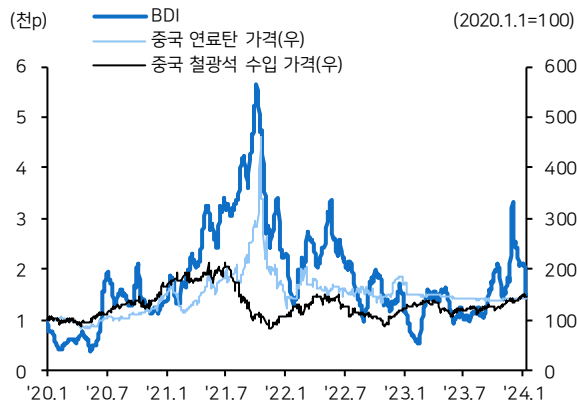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4. 1. 16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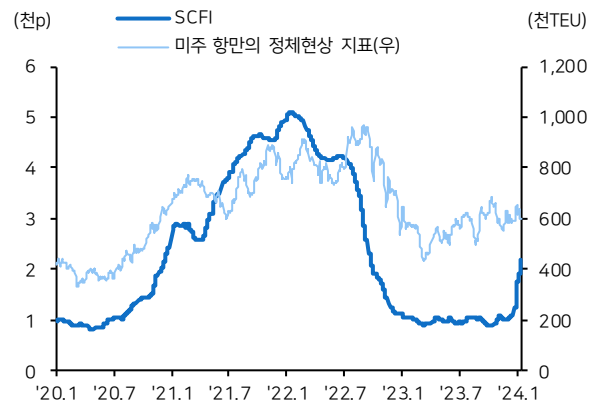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60.0p(-10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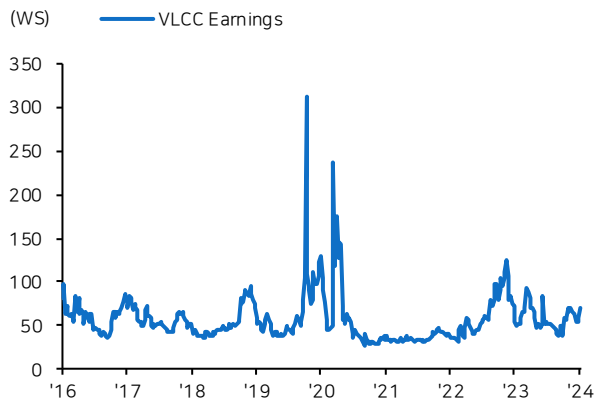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206.0p(+16.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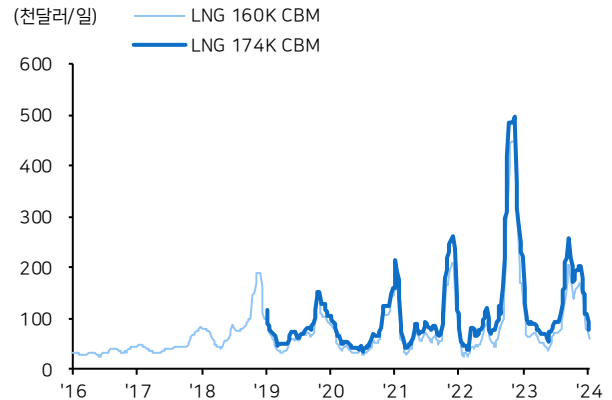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9.3p(+11.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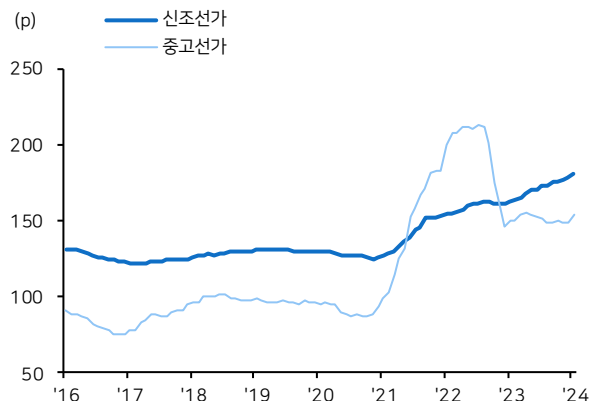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60.0천달러(-15.0p WoW)
75.0천달러(-19.0p WoW)

신조선가

181.0p(+0.7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70.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nergy trader linked to VLGC newbuilding duo at Hyundai Heavy as Korean giant makes fast start to 2024

HD현대중공업이 BGN으로부터 VLG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88,000CBM급 선박을 척당 1.18억달러에 수주해 총 3,101억원으로 알려짐. LPG DF 선박으로 알려짐. 2027년 11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조선Biz) (<http://tinyurl.com/yc8a64hw>)

Shipbuilder SBIC facing 'inevitable' bankruptcy as overhaul of Vietnamese state-owned yard planned

베트남 정부가 SBIC 조선소(전 비나신)를 파산시킬 계획으로 보도됨. 베트남 교통부는 SBIC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핵심 부문 개편 및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됨. SBIC의 자본은 3.9억달러인데 부채가 40억달러 이상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tinyurl.com/mup7trrx>)

George Procopiou's Dynacom stacks product tanker newbuilding orders in China

그리스 Dynacom이 기존 알려진 바보다 4배 더 많은 LR1을 중국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달 전 New Times Shipbuilding에 75,000DWT급 스크러버 장착 LR1 6척을 추가 발주했다고 알려짐. 2026~27년 인도될 예정임. 선가는 척당 5,3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AEDAv>)

카타르, LNG 홍해운송 일시 중단

세계 3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회사가 LNG 운송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됨. QatarEnergy는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할 계획으로 알려짐. 홍해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한 유럽국가로의 수출에 차질이 있을 전망으로 알려짐. 지난 주말 오만 해안에 발이 묶인 QatarEnergy 선박은 총 4척으로 언급됨. (한국경제) (<http://tinyurl.com/32zdwnem>)

Owner of \$23 billion North America pipeline project secures critical green light

지원된 230억달러규모 캐나다 Trans Mountain Expansion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서부해안 및 아시아항 파이프라인 석유 수송량을 300,000BPD에서 890,000BPD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짐. 지난달 캐나다 에너지규제기관(CER)은 파이프라인 품질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적정 파이프로 교체하며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됨. 2024년 상반기 중 가동될 전망으로 알려짐. (Upstream) (<http://tinyurl.com/5n8d7fyk>)

한화오션, 폭발사망사고 발생 옥포조선소 생산 중단

한화오션이 폭발사고가 발생한 거제 옥포 조선소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함. 한화오션은 사고 조사에 따른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후 생산을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짐. (뉴스1) (<https://t.ly/ybBrZ>)